

예배 및 모임안내

2025-41 2025년 10월 12일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19	10. 26	11. 02
대 표 기 도	윤미경 자매	이예준 형제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윤미경 자매	이예준 형제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새로 등록한 성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금요기도회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음대 강의실에서 모입니다(당일 단톡방 공지)
5. 주일예배 - 오후 1시50분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6. 나눔의 시간 - Steinbauer 경아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우동정

환영	최상우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추수감사	
합계(Euro)	
온라인헌금(10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 (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340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장래황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삼상 22 : 6 - 10(구p446) (1.Samuel 22:6~10)	장래황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에셀나무 아래의 신앙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아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끌려가지 말고 주도하라

대한민국의 일터만큼 술자리 문제가 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술을 권하는 독특한 우리의 음주문화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회식문화 속에서 과연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강요하는 상사나 동료들은 크리스천들에게 한 잔만 마시라고 강요합니다. 때로는 회유책을 쓰기도 합니다만 정말 한 잔 마시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그렇지 네 녀석이 크리스천이라고 해봐야 별수 없어 넌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고 티 내지마!’ 이런 치열한 영적싸움의 현장에서는 크리스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크리스천 직장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술을 마셨는데, 계속 술을 마시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장 동료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술 마시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술 안 마시는 크리스천이 되려고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진심을 담은 고백과 그에 뒤따른 행동을 통해 오히려 동료들에게 인정받았고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도 술자리에 참석해 동료들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고 뒤통수대리를 해주며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직장인은 그렇게 동료들을 집까지 태워다 주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 여섯 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면 회식 사역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크리스천 직장백서 / 방선기 목사(일터개발원 이사장)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말씀에 비추어 현실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볼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